

불자 세상보기



김명준
구로연꽃어린이집원장

취학 전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물리적 환경은 영유아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적 사회적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취학 전 영유아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은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실내공간은 놀이와 학습을 병행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지향하여 연령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영유아의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물리적 시설과 설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실내 환경요인 중 건물 재료 마감재, 가구 등에서 방출되는 공기오염물질로 인한 아토피성 피부질환이 유발된다는 학계보고도 있다.

어린이집은 화장실과 조리시설 등 습기를 다량으로 유발하는 시설물들을 실내에 포함하고 있고 배식을 위한 음식물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균서식과 번식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린

이집의 신축 또는 개축공사 시에는 가능한 천연자재를 사용하여 하며 자연 환기를 규칙적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기정화 기능기기 등을 이용한 강제 환기를 하여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리를 시스템화 하여야 한다.

공기질관리의 관련법규에는 어린이집 연면적이 430㎡는 의무적으로 공기질을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반면 연면적 430㎡ 이하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공기질 측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각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연면적과 상관없이 공기질 측정과 석면검사를 실시하여 보육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공기질 개선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한다.

쾌적한 보육환경조성하기 위해서는 건물 내장재에 포함되어 있는 석면을 조사하고 실내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라돈 등의 함유성분을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자연환기와 더불어 강제 환기의 필요성이 있는 사실에는 공기정화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또한 세균번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위한 조리실

화장실 등의 청결과 조리식품의 경우 급·배식 시간을 준수하여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측정과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영유아의 자녀를 둔 부모는 어린이집을 선택함에 있어 많은 기준과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새롭게 어린이집을 선택해야 하는 학부모에게 세가지 정도의 선택기준을 조언해 드리고자 한다.

첫째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인가?
평가인증이란 국가의 보육정책에 따라 보육의 질적 수준의 제고와 유지 방안을 위하여 2005년 시범운영을 통하여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된 어린이집 검증시스템이다.

평가인증의 평가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 프로그램, 안전 등으로 나누어지며, 국가수준의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표준보육과정과 만3-5세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을 실시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평가인증의 통과 여부는 최소한의 보육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기준이다.

둘째 개방적인 어린이집인가?
운영위원회, 급식모니터링, 부모참여,

보육실 개방 등 다양한 부모활동을 통하여 어린이집을 개방하여 영유아와 학부모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처음 어린이집을 경험하는 영유아들에게 부모님의 신뢰감은 바로 영유아들의 어린이집 적응과 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셋째 보육교직원을 지속적인 근무기간과 원장의 운영철학은 어떠한가?

영유아의 사회적 관계는 정서적 유대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 근무하는 교직원인 많은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을 기대할 수 있으며 원장의 바람직한 운영철학은 영유아가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자아 정체성의 기초가 된다.

위에서 언급한 물리적 인적 보육환경은 보육사업안내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육사업지침을 준용하는 어린이집이 가장 좋은 어린이집이라 할 수 있다.

2013년 3월부터 실시되는 취학 전 모든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보육은 우리나라 영유아가 국가적 수준의 보육환경과 보육의 질적 서비스를 보장받아야 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소속 어린이집은 대부분 국공립 보육시설로서 위의 기준에 부합하며 학부모가 선호하는 어린이집이다.

안전한 어린이집 생활을 위한 조언

社說

장교 포교는 사관생도때부터

이번달에는 육·해·공군사관학교와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사 불자장교들의 졸업법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그런데 졸업생들의 인원을 따져보면 한순부터 나온다. 지난해에 비해 총 174명에서 175명으로 대동소이 한 육군을 제외하고 해군과 공군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불자 장교들의 숫자가 군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반증이다. 게다가 3사관학교 불자생도는 169명에서 150명으로, 간호사관학교 불자생도는 24명에서 17명으로 크게 줄었다.

단순히 숫자를 비교하면 뭐 그리 걱정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군포교 현장서 지휘관들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안다면 심각하다. 군포교 현장에서는 지휘관들의 종교에 따라 사병들의 종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교 포교가 매우 중요하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의 특성상 지휘관의 눈치를 안볼 수 없고 특히 지휘관이 독실한 개신교 신자일 경우 아예 사찰에 오지 않는 간부들도 의외로 많다고 토로한다.

실제로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김병관 前 군부총 회장도 2007년 총무원장 지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부대 지휘관의 종교에 따라 부대 전체의 종교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한번도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는 사병들은 중대장이나 소대장같은 중간 간부들을 보며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군포교 포교를 담당하는 군종교구는 장군 진급과 중대장 부임시 지휘봉을 선물하는 등 장교 포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영부족인 상황이다.

교구서 종단 신도증을 발행 해주고 교구장 스님이 직접 연락도 한다. 또한 최근에는 유발상좌 제도까지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유발상좌 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보려면 부대 인내 사찰과 장교가 신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찰의 스님들이 상좌제도에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군포교 차원에서 장교 포교는 사관학교 생도 때부터 불자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문화콘텐츠 발굴 노력 이어져야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오래 전 백범 김구 선생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 그는 “우리의 부는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며, 오직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했다.

현대에서 문화의 힘은 기초된 문화를 어떻게 포장해 대중에게 선보이느냐에 달렸다. 소위 ‘CT’로 불리는 문화산업기술 역시 한국이 추진하는 역점사업이 됐다.

한국전통문화의 보고인 불교도 2000년 이후 이 같은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불교문화상품모집’이다.

올해로 5회 째를 맞은 ‘불교문화상품모집’은 역사는 짧지만 여타의 공모전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550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이는 전

년 대비 2.5배 증가한 수치다. 일반 작가들의 참여도 많았지만 가족 단위 참가자가 대폭 늘었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일반 기업과 국가 공모전의 접수 작품 수가 평균 200~300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한다면 불교문화사업단의 공모전은 단일 공모전으로는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이외에도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불교에 대한 대중들의 호감이 증진한 것도 요인으로 보인다고 내부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 같이 문화사업은 대중에게 가장 손 쉽게 어필할 수 있는 포교의 방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불교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문화 원형을 가지고 있다. 이를 ‘옥(玉)’으로 갈도 닦는 것이 문화를 만들어 온 조상들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 불교문화상품을 비롯한 콘텐츠 개발에 더욱 힘써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생각해봅시다

음식물 쓰레기·오수, 불교서 해법 찾자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해양에 버리는 행위가 전면 중단된다. 린덴협약은 폐기물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국제협약으로 한국은 1993년 가입했고, 1994년 1월부터 효력이 발효됐다.

그동안 한국은 육상 매립지가 부족해 해양 투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폐수, 2014년 산업 폐수와 폐수 오니 등 모든 폐기물 투기를 금지된다.

쌀알 한 톨에서 온 생명의 의미를 찾는 불교의 정신과 추진했던 환경운동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한 빈그릇운동의 근원지이기도 한 정도회 예코붓다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예코붓다는 쓰레기제로, 빈그릇 운동, 지렁이 퇴비화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정도회는 환경일지 등을 제공해 회원들이 항목별로 이를 체크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을 권장하고 있다.

쓰레기 제로 운동은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뒷물 사용, 면생리대 사용 등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도회는 법당 안에 캔음료, 봉지에 든 식품 등의 반입을 금지하며, 화장실에는 휴지를 두지 않고 뒷물 사용을 장려한다.

빈그릇 운동은 2004년 9월 ‘빈그릇운동 10만인 서약캠페인’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빈그릇운동 100만인 서약 캠페인’으로 확산됐다. 현재 학교, 기업, 군대, 지자체, 종교계, 시민 사회단체, 정부 등이 함께 하며 150만 명이 서약에 동참했다. 법당 내에서는 발우공양 대신 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되 그릇을 깨끗이 닦아 세제 대신 쌀뜨물로 세척하도록 하고 있다. 지렁이퇴비화 운동 역시

지렁이를 음식물 쓰레기로 키워 지렁이의 분비물로 퇴비를 만들어 화분을 키우는 과정이다. 이 모두는 음식을 적게 먹고 적게 버리는 생활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류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생태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정도회 예코붓다는 빈그릇 운동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친 바 있다. 2007년 예코붓다와 양천구청은 협약식을 갖고 빈그릇 운동에 동참했다. 당시 빈그릇 운동을 지역사회의 첫 종합 적용 사례로 화제가 됐다.

양천구청은 2006년 하반기부터 양천구 내 동장 이하 각 부서의 과장 등을 대상으로 발우공양 체험,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빈그릇교육 등을 실시했고 그 결과 구청 구내식당의 잔반량은 교육 2달 만에 70%가 감량됐다.

오수처리 모범 해인사 대표적 수행처이자 관광 사찰 중 하나인 해인사는 사찰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쓰레기 등을 사찰 스스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해인사는 상주인보

다는 오가는 사람들로 인한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찰 내 발생하는 오수를 관으로 연결해 산 아래 공동 오수처리장으로 이동시켜 처리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가이산 흥휴동 계곡의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해인사는 발우공양의 절약정신을 살린 식판공양을 함으로써 적절한 양만큼 먹도록 생활화하고 있다.

청정사제로 소개된 진관사 서울 은평구의 진관사의 정화시설도 친환경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2005년 불교환경연대 청정사찰사제로 소개되기도 했다. 진관사의 오수처리시설은 침치식 막보리 활성슬러지 공법으로 하루 25t의 오수를 처리한다.

설치 후 오수로 인한 악취와 오염이 사라졌다. 여기에는 화학세제·화학약품 사용을 중단하고 밀가루나 쌀뜨물로 설거지 등 생활의 변화도 한 몫했다. 자연스럽게 외부 반응도 좋았다. 자체적으로 매일 시설 점검점검 및 지지를 작성하고 있으며, 3개월마다 분리막 청소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빈그릇 운동 근원지, 정도회 정도회는 생활 속에서 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이를 회원들이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불교계에서 전개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해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현대불교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 주 전 지 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정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는가?
4. 태어남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예)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화제의 신간 새로운 천년의 터
천년의 풍수역사를 정리한다.
이 책은 현재 모호한 풍수지리 정의에 일대 혁명적인 검증과 실증으로 풍수의 본질적 실체를 유사 이래 처음으로 적나라하게 파헤친 살아있는 글이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중대사를 열거 한다.
우리의 풍수역사는 천백년전 통일신라말기 도선국사를 시조로 하여 이어지고 있다.
이때가 즉 풍수 1세대이다. 도선국사는 그가 생전에 지은 저서들을 제자에게 물려주지 않고 지리산 청학동에 숨겨놓고 후대에 그곳을 찾아내는 사람한테 그 범동을 잇게 하는 절묘하고 신묘한 방법을 택했다. 그리하여 500년 후 이조초기 무학대사가 청학동을 찾아들어가 그 범동을 풀어지지 않게 이어 놓았다. 풍수 2세대인 것이다. 그 후로 청학동의 실체를 알아냈다.
모성학자/ 신국판 / 532쪽 / 정가 23,000원
육임이 보인다 판승/ 4x6배판/양장본/70,000원
사주풀이의 법수 판승/ 4x6배판/양장본/70,000원
한국의 발원 자미두수 비법 판승/ 4x6배판/양장본/45,000원
자부眞詮精解 판승/ 4x6배판/양장본/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판승/ 4x6배판/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판승/ 4x6배판/양장본 1 권 880쪽 1 권 680쪽/각 권 50,000원
■ 감백민 판/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풍수 양택론 판승/ 신국판/양장본/신형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송월스님의 완결판 디더어 출간!
新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사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롭게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감용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하게 가르쳐 천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책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신국 판/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풍수 양택론 판승/ 신국판/양장본/신형 지음/26,000원